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0.(목) 11:00 (지면) 2026. 9. 11.(금) 조간 배포 2026. 9. 10.(목) 06:00

북극해 누빌 차세대 쇄빙연구선, 본격적으로 건조 시작한다

- 9월 11일(금) 경남 거제에서 착공식 개최, 2030년 정식 취항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11일(금) 경남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한국선급, 한화오션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쇄빙연구선 착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지난 2009년 취항한 첫 번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쇄빙연구선이다. 아라온호만으로는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현장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80도 이상의 고위도 북극해 접근에 제한이 있어 새로운 쇄빙연구선의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한화오션은 작년 7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장비 계약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쇄빙연구선은 아라온호에 비해 50% 가량 향상된 쇄빙능력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해빙(海水)현황과 북극해 어족자원, 해저지질 등 북극 관련 연구를 폭넓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LNG와 저유황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체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해 기존의 고정식 설비와 비교하여 연구 공간 활용도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날 착공된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올해부터 건조를 시작하여, 2029년에 완공되면 시험항해 이후 2030년부터 정식으로 북극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향후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북극 연구를, 기존 아라온호가 남극 연구를 전담하게 되면 남·북극 연구항해 일수는 기존의 연간 약 85일에서 약 270일로 3배 이상 증가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는 다가올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해 과학연구자료를 축적하고, 극지연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며, “건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51-773-5240)
		담당자	극지정책팀장	박찬수 (051-773-6181)
			사무관	김주현 (051-773-6182)

참 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주요 제원

□ 차세대 쇄빙연구선 vs 아라온호 주요 제원 비교

구분	차세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쇄빙능력 / 내한성능	1.5m at 3knots / -45°C	1m at 3knots / -35°C
연료	LNG 및 선박용 저유황유(MGO) 겸용	선박용 저유황유(MGO)
효율적 공간 확보	탈 부착식 연구장비	장착식 연구장비
승선인원 확대	100명(승무원34명, 연구원 66명)	85명(승무원 29명, 연구원 56명)
주요활동 해역	북극 중심	남·북극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후 남극 중심)
총톤수(GT)	약 16,560톤급	7,507톤
선체 크기(m)	140.8 x 25.0 x 8.6(LxBxD)	111.0 x 19.0 x 7.5(LxBxD)
항해속력	13 knots	12 knots
무보급항해일수	75일 이상	70일
컨테이너 탑재	26 TEU(최대 52 TEU)	31 TEU
Moon Pool	적용(4m x 3.2m)	미적용

□ 차세대 쇄빙연구선 조감도

